

“ 두려워하지 말라 ”

■ 이종윤 원로목사

전지 ·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고 수차례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네 나라 왕의 역습에 공포와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네 군인들에게 줄 급료)이라”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그랄 왕에게 빼앗겼을 때도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야곱에게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복이 되셨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해 앞에서 바로와 그 군대의 추격이 울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에서 구원자가 되셨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진퇴양난의 국가적 위기와 오해와 편견에 묻혀 변명할 길 없는 개인의 위기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를 믿기만 하라” 하신다.

그분은 불꽃같은 눈을 가지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 잃어버린 것, 잘못 된 것, 충성한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으로 자기를 믿는 자를 용서하신다. 그 입은 날 선 검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죄를 쫓개는 날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가지신 주님의 말씀이 역사와 개인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 그 오른손에 7교회의 사자인 7별이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오늘도 일하신다. 사도 요한은 마침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경외” 가 있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고 하신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176명의 선원들은 함께 타고 가는 “사도 바울” 때문에 “두려워 말라” 는 음성을 들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5천만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신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타고 가는 배의 선장이시고 그 분이 키를 잡고 계시니 “바람까지도 잠잠하라” 하시는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자.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초청하여 길 가시는 도중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서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곧 일어나거늘” 하신 기적이 일어났다. 절망 중에도 믿기만 하면 기적도 일어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도 일으키셨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으나 옮겨 놓는 信心一致의 삶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알게 되고 보게 된다 하신다. 믿되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만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믿고 볼 수 있기를 기도하자.

-한국장로신문 2017년 9월 23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이 더욱 깊어가는 11월 둘째 주일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더욱 깊고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편, 서울교회 회복의 감사와 기쁨을 함께 하고자 수능시험이 끝난 후인 11월 18일(금) 오후 8시 찬양사역자 송정미와 함께하는 찬양과 간증의 시간, ‘송정미 찬양콘서트’를 본당에서 갖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다락방 식구와 함께, 특별히 예전에 서울교회를 함께 섬기던 그리운 분들을 초대하셔서 설립 31주년을 맞는 ‘내 사랑 서울교회’의 추억을 나누며 아름답고 은혜로운 가을밤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113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채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토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용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담임목사 Senior Pasto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1>서울교회</h1>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손달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

“ 당당하고 위엄있게 ”

■ 다니엘 6:10-18

위기는 젊은 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마감할 때가 다가와도 여전히 시험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말년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수모를 당하고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권력 다툼 때문에 끝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된 이후입니다. 아마도 그의 나이가 80세를 넘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노인이 된 다니엘에게 찾아온 시련입니다. 왕 이외의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 공포되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기도했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노인 다니엘의 위엄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엄 있는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야겠습니다.

1. 모함과 음모 앞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너무나 출중했고 바벨론 출신들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견제와 시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기도 금지법’이었습니다. ‘왕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누구나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 문제의 초점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훼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이런 율가미와 사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이것이 노인 다니엘의 위엄입니다. 살기 위해, 권력의 연장을 위해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담담히 자기 길을 걷는 것입니다.

2. 다니엘의 투쟁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좀 특이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망향의 그리움으로 하는 기도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모든 희망의 결집체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무엇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당하며 재앙 앞에 타협하지 않는 대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다가온 시련을 대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단호하고 초연하며 자유롭고 목직합니다.

3. 하나님의 구원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에 처해졌습니다. 밤을 지새운 왕이 새벽에 사자굴을 찾아가 ‘다니엘이여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원하셨는가?’라며 소리쳐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신앙의 장엄함을 지키는 자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박해자의 칼을 피할 수 없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때문에 다니엘서의 교훈은 성도의 궁극적 승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죄한 사람이 무덤 같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결국에는 살아나 승리한 것처럼 성도들도 시련과 박해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도록 가르쳐줍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좀 더 가졌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지나가고 영원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 당당하고 자랑스럽도록 오늘을 다니엘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안용근 목사	김광태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노제현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29:1-2, 1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9(1절)...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30(시 67)...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1(46)...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단 6:10-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당당하고 위엄있게”...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05(458)...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김익환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48:1 인 도 자
 찬 송 32(48) 다 합 께
 기 도 이영준 집사
 찬 송 420(212) 다 합 께
 성 경 왕상 10:14-2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솔로몬의 전성시대와 위함” ... 설 교 자
 권사회 특송 말 은 이
 * 찬 송 430(456)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전재홍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이영자1 권사 II부: 신금천 권사
 성 경 왕상 11: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그가 여호와의 띠니므로”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이경희3
 설 교 손달익 목사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송정미 찬양 콘서트** 본당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서는 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성구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 홀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소식

☛ 모 임

- 마리아전도회 월례회 / 13일(주) 오후 12시 10분 802호
- 바울선교회 임시 총회 / 13일(주) 오후 12시 10분 606호
- 사명자대회 집행부 모임 / 13일(주) 오후 12시 30분 202호
- 이삭선교회 총회 / 13일(주) 오후 12시 30분 502호
- 사라전도회 총회 / 13일(주) 3부 예배 후 602호
- 리브가전도회 총회 / 13일(주) 3부 예배 후 502호
- 에스터전도회 월례회 / 16일(주) 수요일부 예배 후 802호

☛ 알 림

-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
-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남궁희자	1교구	리브가	본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2.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네번째 세례식인 12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2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11월 27일(주일)
 *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및 문답: 12월 4(주일) 낮 12시 20분 602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33명	561명	2,094명	565명	1,887명

난세를 사는 슬기

다윗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사랑을 받은 존귀한 인물이다.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신분이 높아져도 처신은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시 그는 낮고 천한 목동이였다. 그러나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타도하고 구국공신이 되어 사울왕의 사위감으로 발탁되었을 때 그는 겸손히 사양을 했다. 그렇다. 사람이 출세 좀 했다고 자존망대하다가는 삼천척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법이다.

다윗은 작은 은혜도 크게 받을 줄 아는 슬기를 가진 이다. 왕의 자리가 양위된 것도 아니고 나라의 절반을 떼어준 것도 아니건만 자기를 죽이려는 울무인 줄도 모르고 다윗은 감지덕지 내려준 부마의 자리를 받았다.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이 오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이 오며 햇빛에 감사하면 일곱 날의 빛이 올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이다.

겸손과 감사 그것이 난세를 사는 슬기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